Abstracts of Artists' Note

Jinokist

My work is borrowed popular and conventional images from pop art and its form with methodology but has got different point of view such as reflection sensing the change in more direct way as well as critical perspective on reality today which makes different from pop art. The reason that I use mannequin as a medium, I would like to experiment merchandising commodity as an art work. Commodity is the best item in a capitalistic society and also is a outstanding symbol in consumer society which is just out from assembling line in factory, then my work paradoxically uses that context remaking another art work by artist's activity.

Seoyoung Stephanie Bae

Womb is the origin of every creature being existing in the Universe.
Once formed, existing beings are circulated in feedback system of the World and each existing being interacts through circulation in the great system of universe.
Every existence of things including living creature is an ephemeral phenomenon of substance for regression of endless circulations. Every tangible and intangible being shall not be existed alone, but existing in a holistic organic structure that can be called an Universal Womb where every being originates, changes and revolves infinitely.

Kura Yang

No one wants to consider of the throw out. But only useless, unpleasant, hateful, poisonous and dreadful things will be staying beyond the time and this is the most powerful as we call 'garbage' which is another modernity as well as a documentary of history. There is a desert island called Saseungbongdo from 30km distance in Daebu Quay. It is a beautiful island, however, after rainy season tons of garbage floating down from China, North Korea, and South Korea. Like "Island of Trash" in the Pacific Island, this Saseungbongdo could be representing today's South Korea, China and North Korea's political status. I would like to look into this surroundings and produce related project.

Sunhee Lee

For me, being an artist is a journey searching for consolation, rest and happiness which are staying positive in my life. It can be a meditation to firm-up myself or it can be a helping hand to someone.
I one was thinking that 'what if I am not an artist and take other ways instead of producing artwork and how to make my life then?'. Recently I question myself getting into my 30s whether I am a useful being, my activity is productive which are quite difficult to answer clearly. I might live and we see all the potentials of new beginning in my heart. We might open to possibility trying to be flexible in responding within ourselves.

Sungwon Jung

In this 'Folding Project', I installed canvases at corner, edge and pillar in the exhibition space where we do not normally hanging pieces but rather I choose canvases folding and inserting(cutting) or even twisted between the corner. From the beginning of my experiment on materiality with paper to the present, I fold it and the canvas which was flat transformed into the stereoscopic space. This is the heart of my work which I have been treating paper in my early works from early stage till today when I expand my perspective to the space.

2014 경기창작센터 상반기기획전 **입주작가 5인전**
〈해석의 재해석〉
2014. 3. 20 - 5. 31

기획 경기창작센터
총괄진행 김진희(학예팀장)
진행 김현정, 최정수, 박슬기
행정지원 이경호(기획사업팀장), 차영근, 김미선, 이문희, 김홍환
큐레이터 어시스턴트 임하영, 정선화, 라정식, 박진
시설지원 박문철, 김원철, 박종호, 김남영, 조관휘, 박종원, 강제을, 김병완, 김일용, 심종범, 김옥엽, 유일순, 이정숙, 신진영

디자인 이은경 • 디자인 이응
인쇄 문성인쇄
번역 김현정

편집인 경기창작센터장 박희주
발행인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엄기영
발행처 경기창작센터
발행일 2014. 6. 20

본 출판물은 2014 경기창작센터 상반기 특별기획전 〈해석의 재해석〉 도록으로 경기창작센터에서 발행하였습니다. 본 권에 실린 글과 도판은 경기창작센터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기창작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로 101-19
T. 032. 890. 4820 F. 032. 890. 4880
www.gyeonggicreationcenter.org

Twitter @creation_center **Facebook** Creationcenter

Gyeonggi Creation Center:
Resident Artists' Exhibition in 2014
<Reboot Everything>
2014. 3. 20 - 5. 31

Organised by Gyeonggi Creation Center
Publication in Charge Kim Jinhee(Chief Curator)
Curatorial Support Kim Hyun Jeung, Park Seulki, Choi Jeong Soo
Administrative Support Lee Kyung Ho(manager)
Young Kun Cha, Mi Sun Kim, Lee Moon Hee, Kim Heung Hwan
Curator Assistant Lim Ha Young, Jeong Sun Hwa Ra Jeong Sik, Park Jin
Maintenance Support Park Moon Chul, Kim Won Chul
Park Jong Ho, Kim Nam Young, Cho Kwan Hui, Park Jong Won
Kang Jae Ul, Kim Byong Wan, Kim Il Yong, Sim Jong Bum
Kim Ok Yeup, You Il Soon, Lee Jeong Sook, Sin Jin Young

Graphic Design Eunkyung Lee • design lee eung
Printing Moonsung Inseck

Englsih translation Kim Hyun Jeung
Editor Park Hui Joo • Director of Gyeonggi Creation Center
Publisher Um Ki Young
President of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Date of Publishing 20 June, 2014

This book is published in conjunction with the catalogue for special exhibition <Reboot Everything> of 2014 and GCC artists' activities. No part of this book may be reproduced or utilised in any means without permission of Gyeonggi Creation Center.

©Gyeonggi Creation Center

101-19 Seongam-Ro, Fanwon-gu, Ansan-si, Gyeonggi-do, Korea
T. 032. 890. 4820 F. 032. 890. 4880
www.gyeonggicreationcenter.org

Twitter @creation_center **Facebook** Creationcenter

GYEONGGI
CREATION CENTER
경기창작센터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이선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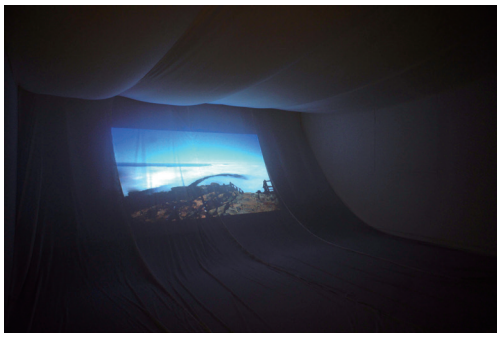
Sunhee Lee

나에게 작업은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요구되는 위안과 안식, 행복과 같은 긍정의 무언가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단단해지고자 하는 나 자신을 위한 수행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내미는 손길일 수도 있다. 어느 날 문득 '내가 작업을 하지 않고, 다른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 나는 적지도 많지도 않은 나이 30대에 들어서면서 내가 유용한 존재인지, 내가 하는 행위들은 생산적인 행동인가, 답을 찾기 어려운 질문들을 쏟아내고 있다. 어쩌면 나도, 우리도,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조금은 유연하게 살아가야 하지는 않을까?

전시는 〈너무나 많은 시작〉, 〈쌓다. 쌓여지다.〉, 〈앓던 모든 것〉, 〈말로는 부족할 때〉 4가지 주제의 작업이 선보인다. 〈너무나 많은 시작〉은 쓰임을 다한 니트 조직의 옷과 소품을 사진으로 남기고, 풀고, 어떠한 새로운 오브제로 다시 만들고, 다시 사진으로 남기고, 또 풀고……. 옷을 푸는 행위를 통해 새로운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담고, 풀려진 실타래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함을 이야기 하고 있다. 〈쌓다. 쌓여지다.〉, 〈앓던 모든 것〉은 유행이 지나거나 빛바랜 헌 옷가지를 주 매체로 사용하는데, 헌 옷의 다양한 색들은 자연스럽게 얽히고 설켜 유기적인 관계망을 형성하고, 교차되는 손길과 실의 매듭은 나와 타인, 내부와 외부, 현실과 이상 등 세상에 공존하는 것들을 '같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엮어나가는 행위이다. 또한 수 없이 반복되고 무의미해 보이는 행위들을 켜켜이 쌓여 얇지만 높은 기둥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쌓다. 쌓여지다.〉는 중심축이 없어서 어떠한 외부의 힘에 쓰러질 수도 있고 위태롭기도 하다. 하지만 이것은 나의 불완전한 존재를 상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말로는 부족할 때〉는 아버지가 지리산에서 찍어온 사진을 편집하여 전시장으로 옮긴 설치작업이다. 사진 속 발밑에 펼쳐진 구름들은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냐고, 무엇을 쫓고 있느냐며 천천히 가라고 이야기 하는 듯하다. 이렇게 작업들은 각기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모두 다 상호적인 관계망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한 고민과 바람 그리고 균형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다.

sunhee_lee@naver.com

1. 너무나 많은 시작
   디지털 프린트, 풀려진 헌 옷 • 가변설치 _ 2014
2. 말로는 부족할 때 • 거즈천, 영상, 사운드 • 01분 04초 • 2014
3. 말로는 부족할 때 • 거즈천, 영상, 사운드 • 01분 04초 • 2014
4. 쌓다, 쌓여지다.(Detail)
   수거한 옷 재단 후 손 직조 • 가변설치 • 2014
5. 앓던 모든 것
   수거한 옷 재단 후 뜨개질, 디지털 프린트, 사진 위 드로잉
   가변설치 • 2012 - 13
6. 앓던 모든 것 - 구의동 • 디지털 프린트 • 90x60cm • 2013
7. 너무나 많은 시작 • Installation view



정승원

Sungwon Jung

캔버스 접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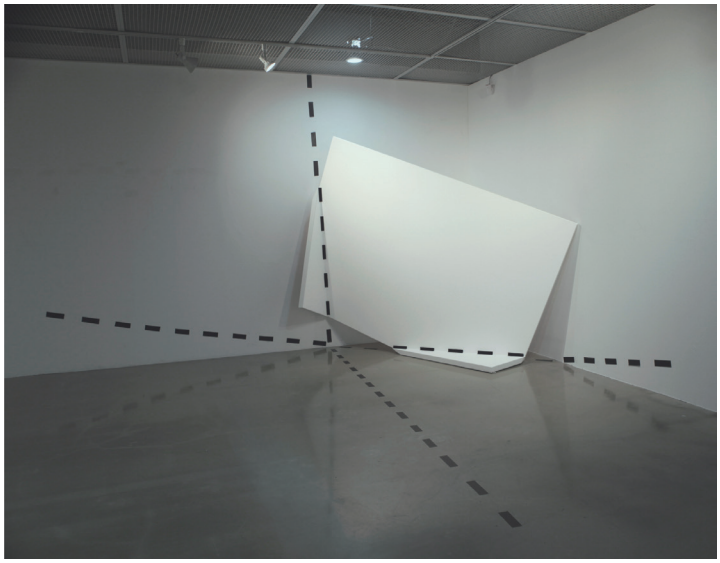
'그림은 왜 항상 벽면에만 걸리는 걸까?'
캔버스를 접게된 계기는 클래식한 회화가 걸리는
위치에 의문을 가지면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서 다시 주목하게 된 곳은 전시공간의
'모서리'이다.
나는 이전 작업에서 종이의 접은 선 부분과 건물의
내부 공간 모서리에 안접기선, 바깥접기선,
실선 등 종이접기에서 이용하는 선기호를 사용하여
공간의 '접혀진' 지점을 드러내는 드로잉
작업을 해왔다.
이렇게 접혀진 선에 집착하는 이유는
나에겐 그 부분이 평면 공간에서 입체 공간,
종이공간에서 건축공간, 현실 공간에서
상상 공간으로 넘나드는 지점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Folding 프로젝트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림이
걸리는 벽면이 아닌 가장자리나 구석, 기둥에
마치 종이를 접듯 캔버스를 접어 끼워
넣거나(자르거나) 혹은 모서리에서 약간 틀어져
나오도록 설치 했다.
종이의 물성을 실험하던 초기 작업에서부터 사용하던
방식인 접기를 통해 회화의 공간인 평면 캔버스는
삼차원의 입체 공간으로 변형된다.
이것이 종이만을 다루던 초기부터
공간으로 확대된 현재까지 계속해서 관통하고 있는
내 작업의 핵심이다.
건축가에 의해 '접혀진' 전시장 내부공간에
종잇장처럼 접혀진 캔버스를 설치하여, 반듯한
벽면만 바라보며 그림을 감상 하도록 강요 당해 온
관람객에게 한번쯤 시선의 방향을 살짝
비틀어주는 일탈의 경험을 누리게 해주고 싶다.

jsw_rookie@hotmail.com

1 2
3 4

1. Folding on the Folded
   캔버스, 검정 아크릴, 검정 테이프
   200호(F)변형 캔버스 전시공간 모서리 설치 • 2014
2. Folding & Cutting on the Folded
   캔버스, 검정 아크릴, 검정 테이프
   130x130cm변형 캔버스 전시공간 모서리 설치 • 2014
3. Folding on the Folded
   캔버스, 검정 아크릴, 검정 테이프
   130x130cm변형 캔버스 전시공간 모서리 설치 • 2014
4. Folding Project 전시 전경
   ('해석의 재해석'전 中 • 경기창작센터 •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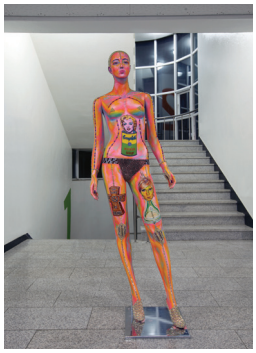
경기창작센터 상반기기획전
입주작가5인전

해석의 재해석

Re-boot Every-thing

박진옥
배서영
양쿠라
이선희
정승원

Jinokist
Seoyoung Stephanie Bae
Kura Yang
Sunhee Lee
Sungwon Jung



2014.
3. 20 thu
5 .31 sat

해석 재
의 해석

Re- Every-
boot thing

경기창작센터
상반기기획전
입주작가5인전

2014.
3. 20 thu
5 .31 sat

박진옥
배서영
양쿠라
이선희
정승원

Jinokist
Seoyoung Stephanie Bae
Kura Yang
Sunhee Lee
Sungwon Jung

경기창작센터(센터장: 박희주)는 2014년 첫 전시로 2013년 - 2014년 입주작가 6인의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2013년 하반기부터 새롭게 기획되어 선보여진 입주작가 소규모 개인전이자 경기창작센터 입주기간 동안의 결과발표전 성격도 지니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경기창작센터의 입주작가들 가운데에서도 매우 진취적이면서 실험적인 시도를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는 이들 6인의 신선한 시도들을 공유할 수 있는 전시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전시의 의의는, 기존의 미술사에서 간과되어질 수 없는 전환점을 만든 현대미술사의 거장들의 개념을 새롭게 재해석하거나(박진옥 <팝아트의 역설과 차용을 통한 변주곡>) 간단한 제스처인 '접기'를 통해 물성을 실험해보며 그러한 경험들이 축적되어 여러 가지 변형의 선들을 매개체로 물성과 형태에 대한 고정된 인식을 새롭게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정승원 <Folding Project>),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서 시작하여 존재의 완성을 이루는 세포, 그것이 모여 조직을 이루고 균열에 의한 해체를 통해 삶과 존재의 회귀, 순환을 다시금 모색하는 설치(배서영 <Reflection>), 헌 옷을 재료로 뜨개질 작업을 진행하며 옷들을 편집하고 다시 재구성을 하여 완성한 편물을 제작할 때의 뜨개질 바늘의 교차되는 움직임과 실의 얽힘을 통해 작가와 타인, 내부와 외부, 현실과 이상 등을 엮어보고 치유하고자 하는 해석(이선희 〈너무나 많은 시작〉), 승봉도라는 아름다운 섬에 유입된 한국, 중국의 쓰레기들을 수합하고 재구성하는 설치과정을 통해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정치적인 대립과 마찰 등을 새로운 관점으로 재해석하고자 하는 이야기(양쿠라 <Made in>), 이들은 대부도에서의 삶을 통해 혹은 기존의 미술사적 개념 및 일상에서 해석되어져 왔던 생각들을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전시구성
사진, 설치, 영상, 입체 등
30여점과 관련자료

장소
경기창작센터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테스트베드
로비갤러리

주최
경기창작센터

박진옥

Jinok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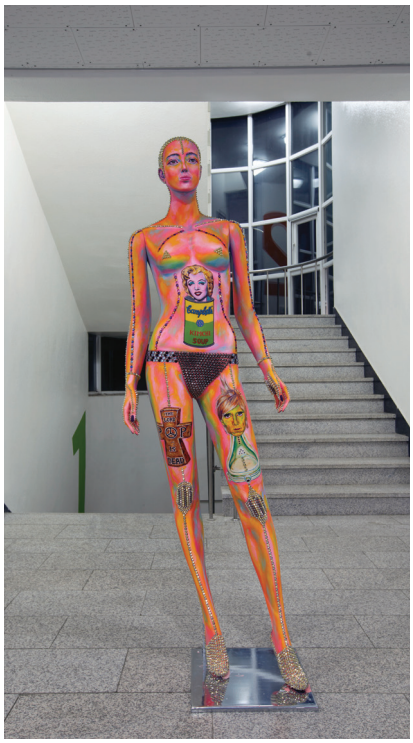
팝아트는 직접적으로 감지된 현실이 아니라, 그래픽 디자인이나 대중매체 가운데 에서 발견되는 현실에 대한 기존의 표현 방식을 음미의 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팝아트의 가장 특징적인 측면은 팝이 형상성을 띠고는 있지만, 그것은 직접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존재 그대로의 이미지가 아니라 인공적인 제 2의 이미지가 채택된 것이었고 이런 이미지들이 화면에 옮겨지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가공의 과정을 거쳐야 만했다. 반면에 나의 작업은 대중적이고 통속적인 이미지를 활용했던 팝아트의 형식과 방법적인 전략을 차용 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이미지들이 직접적으로 감지된 현실을 반영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역시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팝아트 와는 다른 내제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앤디워홀의 마릴린 먼로 시리즈를 예로 들자면 워홀은 마릴린먼로 실제의 사진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실크 스크린이라는 가공의 과정을 거쳐 재 탄생된 이미지를 작품화 시켰지만, 나는 마릴린먼로의 이미지를 차용하지만, 그것을 다른 이미지들과 중복 또는 결합시키거나, 혹은 그대로 사용 하면서 , 직접적인 이미지들이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기호로써 작품화 된다.작품에 사용된 고깃덩어리들의 이미지 역시 직접적으로 감지된 현실의 실재가 그대로 작품에 옮겨지면서 욕망, 탐욕, 권력 등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

마네킹이라는 소재를 이용한 이유는, Ready Made, 즉 기성의 상품을 이용해 예술을 상품화 시키는 작업을 시도했다. 소비 사회에서 가장 탁월한 사물은 바로 "상품" 인데, 상품 이란 공장의 조립라인 안에서 막 나온 기성의 기호이고, 그 기성의 상품을 소재로 삼아 그 위에 작가가 할 수 있는 행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예술 상품으로 재탄생 되는 역설적인 작품이다.

얼핏 포스터나 일러스트레이션(illustration)을 연상시킬 수도 있는 작품에서 이미지와 형상들은 화려한 배경의 색상위에 마치 부유(浮游)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던져주고 있다. 이러한 형상과 이미지들은 마치 본질과 실재(實在)는 점점 사라지면서 이미지와 현상만이 세계를 사로잡아 그것들을 대신하고 있는 듯하다. 나의 작품에서 포스트모더니즘시대의 대중매체시대를 지배하는 사물의 운명을 '표피의 존재론'이라 지칭했던 장 보드리야르의 '시뮬라크라(Simulacra)' 이론을 엿볼 수 있게 된다. 시뮬라크라는 실재와 주체가 증발된 채 기표(記標)들만이 유희하는 공간으로서 거대한 모조공간이다. "실재가 이미지들과 기호들의 안개 속으로 사라진다."는 보드리야르의 언급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사물의 내면적 실체성이 증발해 버린다는 점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나의 작품 역시 시각적 주목성이 강한 이미지들을 차용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그 이미지 속에 내포되어 있는 사물의 본질과 실재가 증발되고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의 암시와 상징적인 의미들 만이 남아있게 된다.

artist8293@hotmail.com



Money Power Fame
가변설치 • 2014

The good die young
oil on wood panel • 240x180cm • 2014

Money Power Fame
가변설치 • 2014

Anarchy is dead
oil on canvas • 227x181cm • 2014

Money Power Fame
가변설치 • 2014

배서영 Seoyoung Stephanie Bae

<반영: Ref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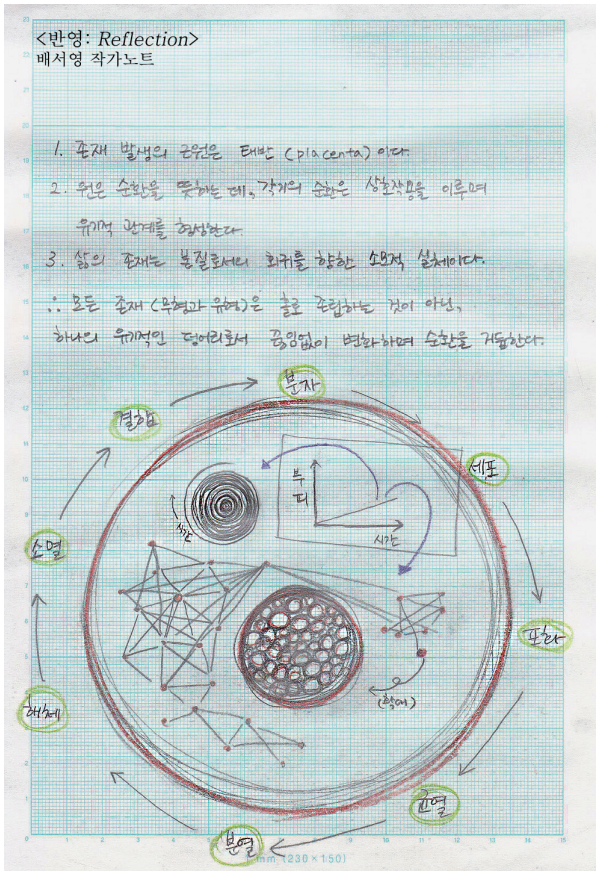
1. 존재 발생의 근원은 태반(Placenta)이다.

2. 원은 순환을 뜻하는데, 각기의 순환은 상호작용을 이루며
유기적 관계를 형성한다.

3. 삶의 존재는 본질로서의 회귀를 향한 소모적 실체이다.

∴ 모즌 존재(무형과 유형)은 홀로 존립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유기적인 덩어리로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순환을 거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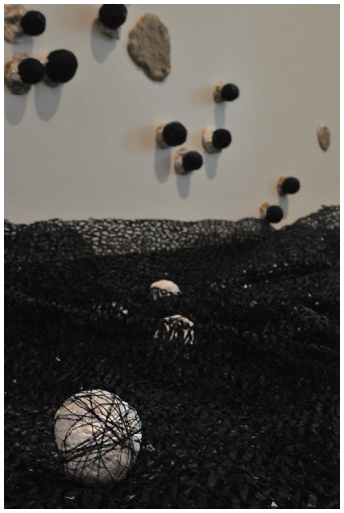
sy.steph.bae@gmail.com



자기복제 (Replication)
모래판, 과슈 • 12.5x17.5cm • 2014

섬 (Island)
캔버스, 오일물감, 오일파스텔, 본드, 모래, 젯소
91x117cm • 2014

초상화 (Portrait)
캔버스, 아크릴, 콘테, 풀
61x91.5cm • 2013



바닥의 설치물은 누군가 움직였을 때에만
소리가 난다.

무제 (Untitled)
장지, 오일파스텔, 오일스틱, 젯소, 먹물
570x317cm • 2014

회귀 (Return)
신문지, 페인트, 먹물, 석고, 실, 모래 • 2014

양쿠라

Kura Yang

아무도 한번 버린 물건은 다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지만 오로지 쓸모없고 불쾌하고 혐오스럽고 유독하고 끔직한 것만이 시간이 흘러도 살아남을 만큼 강력하며 쓰레기라 명하는 것들이 또 다른 현대성이자 역사의 기록이다.

대부도 선착장을 기준으로 서쪽 30km 지점에 사승봉도라는 무인도가 있다. 이 아름다운 섬은 〈1박 2일〉의 촬영지로도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하지만 여름 장마철이 지남과 동시에 그 한해 중국, 북한, 남한에서 떠내려 온 쓰레기들로 섬 일대가 홍역을 치른다. 태평양 한가운데 전 세계에서 떠밀려온 쓰레기 섬이 존재하듯, 이 섬 역시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는 것이다. 해상에 표류된 각국의 쓰레기는 현재의 한국, 중국, 북한, 일본의 동북아시아 현 시점을 들여다 볼 수 있다. 본인은 그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했다.

프로젝트는 여름 장마철 이전 · 이후의 답사를 통해 기후와 가변적 상황에 따라 떠밀려온 다양한 오브제를 수집하고 기록한다. 그러한 수집을 통한 작업은 한국을 비롯한 북한, 중국, 일본의 해양에 떠 있는 쓰레기의 상징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상징성을 통해 쓰레기의 개별적인 정체성과 전체적인 흐름인 시대적 상황을 유추 할 수 있다. 이는 동북아시아 4개국이 추구하는 국가적 세계관에 따라 겉으로는 쉽사리 들어나지 않지만 암묵적인 약속과 배타적인 이해관계가 동일한 시점에 서로 얽히고 섞여 복잡하기 그지없다. 이러한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국경이나 마찰 없이 자유롭게 흘러 다니다 표류한 각국의 쓰레기들은 동북아시아 해상영역의 팽팽한 긴장감을 조성하는 인간보다 더 평화로워 보이는 점이 아이러니할 뿐이다.

한국의 쓰레기는 각종 어구 장비와 일상생활 쓰레기가 주를 이룬다. 한국의 경우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수집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 때문에 가장 많고 생활 쓰레기들이 뒤죽박죽 섞인 채로 발견 된 것이다. 마치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 사이에 끼어 있는 상황처럼 말이다.

북한은 현재 수집된 쓰레기는 김정일을 찬양하는 글씨가 적혀 있는 나무현판이 있다. 북한의 경우 정치적으로 매우 폐쇄적인 성향처럼 단 하나의 쓰레기가 발견되었고, 그것으로 북한의 폐쇄성과 정치성향을 드러낼 수 있다고 본다.

중국은 어로 장비의 부표와 플라스틱 병, 유리병을 비롯해 중국어 글씨가 적혀있는 쓰레기가 있다. 중국의 경우는 해상을 표류하던 부유물들(스티로폼, 페트병, 부표 등)로 중국이 현시대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급부상하는 중국을 대변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쓰레기들이 서해상뿐만 아니라 제주도까지도 흘러간다.

일본의 직접적인 쓰레기는 서해상에서 발견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본인은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이해관계의 문제점이 가시적인 쓰레기처럼 눈에 확연하게 들어나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가시적인 쓰레기 이외 비가시적인 쓰레기인 암묵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함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비가시적인 쓰레기인, 방사능 또한 이야기하고자 하며, 최근 일본 정권이 과거사를 은폐하고 축소하고자 하는 의도 또한 표현 될 수 없는 오브제의 형태를 띤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중국, 북한은 가시적인 쓰레기를 설치함으로 표현되는 것이 각국의 모습이라면 일본의 경우 조명만으로 바닥을 비추는 형태로 마치 일본은 산업화에 따라 소비되고 버려지는 쓰레기들의 환경적인 문제점에선 깨끗한 상황처럼 비칠 수 있으나, 위에서 언급했듯 비가시적인 방사능처럼 눈으로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존재를 의미하며,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해결되지 않는 과거사나 후쿠시마원전사고와 같은 사건의 은폐와 축소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모두 4개국을 쓰레기의 가시적, 비가시적 존재를 이야기함으로서 동북아시아 복잡하고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이해관계를 들어내 보고자 한다.

본인은 이 작업을 하기 전에는 매우 객관적인 시선에서 표현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한 국가의 국민이 3개국의 입장을 깔끔히 대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기란 무리라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며,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복잡함을 예술이라는 언어로 다시 이야기 하고자 함은 대한민국 그리고 동북아시아, 지구적 관점에서 지금 인간이 취하는 행동과 이기심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 인가 다시금 생각해보았으면 함이다.

전시장에 쓰레기 이외 2개의 작품이 더 있다.

하나의 작품은 사승봉도에 산재한 해상쓰레기들의 사진 슬라이드 영상이며, 아카이브 개념의 설치 작품이다. 다른 4개의 모니터의 영상은 유튜브에서 수집한 한국, 중국, 일본, 북한의 군사 홍보 영상들을 취합한 영상으로 대한민국 서해상 기준 방위에 따라 4개국의 영상이 동일한 타임라인으로 구성 된 형태로 플레이된다. 이 영상은 헤드폰을 통해 사운드를 들으며 감상을 하게 되는데, 영상 사운드는 각국의 군사홍보영상의 내레이션이나 사운드가 아닌 1977년 나사에서 발사한 보이져 호가 녹음한 태양계 행성들의 사운드이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사운드는 군사홍보영상들을 보면서 공포심을 느끼게 되며, 이는 전지적 우주관점에서 현재의 동북아시아의 상황을 극도로 초라하게 만들며 마치 쓰레기가 되가는 시대상으로 생각되어진다.

kura_yang@naver.com

MADE IN • 4CH군사영상 • 비디오5분 3초 • 2014

MADE IN • 설치전경 • 해상부유물 • 2014

MADE IN • 북한에서 떠밀려온 해상부유물 • 2014